CONTENTS

2 제20차 정기총회 소식

6 신임이사 인사글

9 상임이사 인사글

11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3
이재근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17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9
충남 금산군 장대2리, 숭암 마을 이천일 이장님 인터뷰

21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5

26 정책&이슈

32 대청호 뉴스&뉴스

36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vol.128

발행일 2021. 3. 31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2리의 주민들이 농사짓는 깻잎 하우스의 모습. 장대2리 주민들이 마을에 대규모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깨끗한 마을 환경 속에서 농사지으며 마을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마을 주민들의 뜻이 지켜지길 바란다. (관련 지면 17쪽)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제20차 정기총회로 맑은 대청호를 위한 뜻을 모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려…

지난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오후2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 20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ZOOM에서 진행이 되었다. 예년 같으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을 텐데 이점이 매우 아쉬웠다. 한밭대학교 산학협동관에 있는 화상회의 전용공간에서 최병욱 이사장님과 함께 대청호 유역의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천안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대전광역시 등 각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해온 회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실에 접속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의 시작은 2020년도 코로나 19 상황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금강과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영상이 상영되었다. 정기총회 1부 기념행사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 박사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최병욱 이사장은 “코로나19, 폭우으로 인한 수해 피해 등 어려운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네트워크 활동가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위안되고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활동하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격려하였다. 이사장 이산에 이어 참석한 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대청호 지킴이상은 각 분야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크고 작은 실천력을 보여주어 주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여 드리는 상이다. 올해 대청호 지킴이상은 기관부문에서 K-water 금강유역본부 물환경센터 황현식차장이 수상하였다. 주문부문에서는 영동 임화성 하천감시단, 청주 강호철 마동리 이장, 보은 김충식 하천감시단원, 옥천 유태식 하천감시단원, 금산 김무홍 명곡3리 이장, 대전 정경순 하천감시단원, 천안 위례마을살이 이상명 간사가 수상했다. 시민단체부문에서는 무주 반딧골 연합회 이만옥 회장, 대전네트워크 유지현 팀장이, 대청호해설사부문에서는 대청호해설사 6기 여규용 해설사가 수상하였다.

올해 정기총회를 끝으로 네트워크 대표에서 사임하는 무주네트워크 최왕진, 영동네트워크 배임식, 금산네트워크 길윤현 대표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청호 체험 물사랑환경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대전제일고등학교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별히 대청호지킴이상, 공로패, 감사패 모두 상패로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대청호지킴이상 시상식에 이어서 2부 정기총

회가 시작되었다. 정기총회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최병욱 이사장이 진행하였다.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주임인 유한글 회원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회의자료집을 통해 전차 회의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건희 상임이사으로부터 그 동안의 총회준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20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20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 2021년 사업 및 재정 계획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의안 1호 2020년 감사보고 승인은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의안 2호 2020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의 건은 이건희 상임이사가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하였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의안 3호 정관개정안 첫 번째 사무처장 직위변경 및 임기제 변경사항으로 사무처장이 이사의 역할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어 직위를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연임제안 규정 수정하는 것, 사무처장 직제는 유지하여 활동가 승진 검토, 정관 제 10조 임원의 임기와 제 19조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 수정 건은 이견이 없어 승인되었다. 두번째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분사무소설치 등에 관한 사안이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분사무소 설치가 2019년 2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분사무소 등기를 위해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 32조 2항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는사안은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K-water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건으로 K-water, 금강본부장, K-water 대청지사장이 K-water금강유역본부장, K-water 대청댐지사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전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 됐다.

의안 4호 임원선출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어 부이사장으로 김세환 K-water금강유역본부장이 선출되었고, 김진화 대전네트워크 대표, 한경수 영동네트워크대표(대청호유역하천센터 대표 겸임), 권용보 금산네트워크 대표, 이상진 무주네트워크 대표, 박도선 K-water대청댐지사장, 문종진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지난 정기총회 감사였던 한근히 감사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신임 감사로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가 선출되었다.

의안 5호인 2021년 사업 및 재정계획안 심의 건은 사무처, 네트워크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받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모든 안건의 심의를 마쳤다.

이번 정기총회는 최초로 진행하는 온라인 총회로 ZOOM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이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열었던 지난 정기총회보다 참석에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만큼 모두들 이겨내고 다음 정기총회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곳에 모여 활기찬 정기총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기총회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분기점이다.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보전하겠다는 회원들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대청호보전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를 응원한다.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권용보 금산네트워크 대표

금산네트워크 대표단체를 맡게 된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권용보입니다.

대청호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많이 설레네요.

금산은 산과 물로 감싸여 있어 마을 하나하나가 산으로 가려 있고 물을 건너야 다른 마을에 갈수가 있는 비단고을이라 합니다. 농민들이 모임을 가지려 하면 건천리, 산안리, 금성리 등 읍에서 큰 산을 넘어서 와야 하는 오지도 많습니다. 이런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 2004년부터 작은 모임을 시작하여 금산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대표단체가 되었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국에 유통하는 년 매출 10억 원이 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금강상류의 친환경농민의 한 사람으로 상류와 하류가 하나로 묶은 것이 물이라면 생명의 물이 순환을 하듯 대청호 로컬푸드 장터와 먹거리 순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시범으로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농민들의 작은 생명농업실천이 맑은 물을 지키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산지역의 단체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 소중한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로 도움주고 받으면서 풍성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선 K-water 대청댐지사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대청댐에 부임하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된 K-water 대청댐지사장 박도선입니다.

450만 충청지역민들의 식수원으로써 대청호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중심이 되어 대청호의 수질과 유역을 관리하는 데 20년의 열정을 쏟아 온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 블랙스완으로 닥쳐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대청호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청호는 언택트 관광지로 주목받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자그마한 힐링의 공간으로 일상으로 힘든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자리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청호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그 가치를 높여보려 합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대청호 호반길(가칭)”을 생태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작년 유례없는 홍수에서 나타났듯 이제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극복,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부유쓰레기 문제 해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통합물관리의 안정적 정착은 우리 대청호에게도 많은 숙제들을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들과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바람이 봄을 가져다가 대청호 이곳저곳에 내려놓고 있음을 느낍니다. 매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일상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컨택트한 자리에서 뵙게 되는 좋은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보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상진 무주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무주네트워크 대표를 맡게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무주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직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올해, 무주는 간사단체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제가 속해 있는 친환경산나물영농조합이라는 단체가 연임을 하여 올해부터 2년간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년간 무주네트워크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산나물 재배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현재도 많이 고민하고 배우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강과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늘 어려운 과제처럼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환경의 3가지 요소는 물과 흙, 공기로 이것은 사람의 의. 식. 주와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강과 하천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기본전제를 잊지 않고, 내 아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이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무주네트워크 대표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텐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진화 대전네트워크 대표

대청호보존운동본부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대전네트워크 대표를 맡게 된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진화입니다.

지난해부터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 가까운 지인들과 대청호 둘레길을 자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대청호의 사계절을 볼 수 있었고, 구석구석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대청호보따리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품목에 있었던 마을이름을 볼 수 있었고, 생산지가 어떤 곳인지도 눈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없고, 심지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물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그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던 것들 특히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풍족한 삶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길 수 밖에 없고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대청호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들의 노력과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네트워크도 함께 노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더 소통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유역운동이라는 큰 그릇에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아 봅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이건희입니다. 그동안 실무책임자 겸 임원으로서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대청호와 우리 운동본부를 위해 외부의 활동력을 강화하라는 회원들의 요구로 이해하면서 좀 더 활기차고 왕성한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2년 4월 발족해서 다양한 흐름을 갖고 운동을 추진해왔는데, 물관리 일원화시대의 대청호보전운동은 좀 더 유역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의 변화과정

2002년 발족 초기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은 주로 캠페인, 홍보, 교육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소중함이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상수원 보전의 시작'이라는 기치아래 물절약 캠페인, 물사랑 시민학교, 각종 환경교육을 각 네트워크에서 왕성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청호 유역의 시민들이 상수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가운데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지속가능한 상하류의 연대운동인 '대청호 생활공동체운동'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보전을 위해 힘쓰시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소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 생활공동체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대청호 권역에서 로컬푸드운동을 처음 시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청호 상하류의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친해져야 안 될 일도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청호생활공동체운동

은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보편화된 로컬 푸드운동을 전문으로 추진하는 협동조합 등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교육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상하류의 친밀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15년 정기총회에서 소유역운동을 천명합니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9개의 하천에 대해 지역주민·전문가·시민사회·행정이 함께 관리하는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다양한 실천활동과 정책제안을 진행합니다. 서화천과 회인천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하천조사·마을도랑살리기·재활용분리수거·환경오염행위 근절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고, 각 네트워크에서도 해당지역에 맞게 소유역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역이라는 큰 그릇

우리단체의 소유역운동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소유역 단위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 엄선되었고, 전국의 학회나 포럼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여서는 안됩니다.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물관리의 중심이 환경부로 이전되고, 얼마 안 있으면 하천관리까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그동안 네트워크와 본부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구슬 꿰듯이 엮어서 소유역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네트워크별로 진행되던 마을하천 가꾸기,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소유역 활동에 담아서 완결된 형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전문가·시민사회·행정이 함께 관리하는 소유역이 모여서 '대청호유역참여센터'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시대, 유역통합관리시대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가장 큰 장점인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수질개선 실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제안까지 가능해진다면 유역운동이라는 큰 그릇은 여러분의 힘으로 금방 채워질 것입니다.

저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대청호보전운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늘 현장과 함께하는 환경 전문가

이재근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근 부위원장 약력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현)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현)
- 대전광역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위원(현)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물환경관리 전공)
- 충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전문연구원(전)
- 한밭대학교 겸임교수(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전)
- 환경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원(전)
- 환경부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 위원(전)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전)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48) 책임연구위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월 말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재근 부위원장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관심을 가지며

- 학창시절과 공부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고향은 대청호 상류인 충북 보은이다. 아버지 교직생활로 보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살았다. 보은에서 살 때 산과 들, 하천과 도랑 여기저기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다. 이후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제 위로 형님과 누님이 계시는데 건축학과 환경공학을 공부하셔서 집에 건축, 도시, 환경 등과 관련된 책 등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이 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고민하게 된 것 같다.

도시공학에는 도시계획, 설계, 교통, 환경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공부한다. 도시공학, 도시계획은 외국에서는 공학보다는 인문사회 분야로 들어가기도 한다. 수 처리, 물 환경 관리로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다. 제가 박사과정에 연구한 주제는 적은 인력으로 오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처리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약 3년간 실험을 많이 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연구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연구자로…

- 대전세종연구원과 연구 활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대전발전연구원으로 2001년 개원을 하고 2016년에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을 했다. 우리나라를 위한 여러 연구기관이 있듯이, 대전 · 세종 시민들의 시민행복 및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연구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물론 책임성이 따르는 자율성이다. 우리 연구원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연구원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1가지씩 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저는 지속가능연구실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 관리를 보편적 환경복지의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요새는 대전시의 115개 하천과 대청호를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도 다니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것 중에서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간략히 소개하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것이다. 대전에서 갑천 유역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곳의 오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전광역시 담당부서에 제시하였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거나 비점오염원 유출을 저감하는 것도 큰 효과로 이어졌다. 내가 처음 왔을 때인 2005년에는 갑천 최말단부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6mg/L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2~3mg/L로 측정되는 등 수질이 좋아졌다. 또한 이전에는 대전시 대표수질을 개선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소하천과 같이 세세한 지점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대전시 하천은 다른 도시의 하천과 비교해서 매력적인 곳이 많다고 생각된다. 갑천의 감돌고기, 유등천의 미호종개 서식과 같은 조건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문제들로 하천 하류의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도심의 오염물질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국가하천부터 소하천까지 115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전천 및 대전천 유입 소하천의 답사 및 특성분석을 마무리하였고 올해부터는 유등천, 갑천, 대청호 유입 하천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 대전시 일부 하천에 대하여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이수와 치수 위주의 수립에 그친 경우가 많으며 소하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더불어 소하천 또한 현장조사를 거쳐 각각의 하천마다 특성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전시 소하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소하천에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대청호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청주, 세종, 계룡 등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곳의 수질문제는 크지 않지만 녹조 발생은 언제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전문가와 기관들도 녹조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자료에는 없는 우리가 모르는 오염원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에, 녹조의 원인이 되는 지역을 찾아내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관리의 연구를 하고 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 정책연구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활동 소감을 들어보았다.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염우 대표와 대학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환경관련 NGO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예전부터 NGO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학원 다닐 때부터 환경 NGO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전에 오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다. 그 중 한 분이 현재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이건희 상임이사였다. 그러다 보니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다. 어쩌다 보니 부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

제 입장으로도 대전시가 대청호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이고, 대청호 유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기에 저 또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대청호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며, 더불어 공부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매우 실감했다. 지금까지 대청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현장을 많이 답사하였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난다. 현장과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활 및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대청호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 매우 좋았다.

그러면서,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은 대청호를 깨끗하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었다. 그

분들이 스스로 조성한 대청호도 아니고, 삶의 터전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하여 일반 시민들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우선으로 해야겠지만, 이러한 상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 등의 지원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주민, 기관 등과 함께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여쭤보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를 지키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수질·생태계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이와는 차별화하여 대청호유역의 주민들, NGO,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청호 보전을 위한 의식고취 및 실천활동 강화를 하였다는 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특히, 정부부처의 행정적 대청호관리가 대청호유역 주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에 비하여 지역네트워크 운영과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참 고마운 단체다. 대전시,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 수자원공사 등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 안기도 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주기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목소리가 필요한 법 개정이나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나 제도 등은 바뀌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야 한다. 대청호 유역의 주민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나서고 자신의 터전도 지키며 경제적 수익사업도 된다면 주민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될 것이다. 일례로 환경부에서 토지매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수토지 관리를 업체에 맡기지 말고 마을에 맡기는 것이다. 마을주민들도 충분히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만큼 마을주민들이 환경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앞으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대청호유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수자원공사의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및 지원에 대한 조율의 기능을 하였으면 한다. 상수원관리지역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최대한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사고로 발생이 되었다면 가장 인접한 곳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의 피해자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활동을 넓혔으면 한다.”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다.

-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의 수준이 지금과 같이 올라온 상황에서, 환경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환경의 문제 해결은 어느 특정인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보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회가 진정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서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에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여유가 생겨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사회가 있다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다.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에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예전에 이런 연구사례가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조사에 대한 연구였는데 연구기간이 5년이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크게 변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결국 그 5년도 길다고 하여 2년 만에 사업이 변경되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5년도 짧고 5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해야 하는 과제이다. 환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관심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더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져 왔다. 환경에 드는 예산을 단지 비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그 변화의 폭을 줄임과 동시에, 변화에 따른 대응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의 미래 예측을 바로 앞의 결과만을 보고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 많은 SF 영화에서 살기 힘들어진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아가는 줄거리를 인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살기 좋은 지구를 지향하고 있다. 영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환경에 대하여 많은 양해를 해 줄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만큼 즐겁게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현장을 누벼온 환경전문가로서의 자취와 발자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마을 수호신들이 화나시면 안 되지요.”

충남 금산군 장대2리, 숭암 마을 이천일 이장님 인터뷰

대전에서 안영 IC로 진입하여 금산군 추부 IC로 나온다. 추부 하면 떠오르는 이름, 추어탕보다 유명한 식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깻잎! 들판엔 깻잎 하우스가 즐비하고 겨울을 견딘 대지엔 봄기운이 완연하다.

마을 이장님을 만날 때마다 고향을 지키는 진정성과 열정을 새기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장님을 만나 감동을 안고 올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강혁 국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결 곱고 인간미 넘치는 이장님을 소개한다. 이번에 만난 장대2리 이장님은 필자와 처음 만났지만 두어 다리 건너니 연결고리가 분명한 관계로 세상 참 좁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장대2리 이천일(63)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대전에서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음악 활동을 진행했다. 색소폰과 건반 연주자로 유명 악단에서 활동했으며 주요 방송사까지 거친 실력자였다. 필자의 친구나 선배 이름을 대니 곧바로 연결되어 처음 뵈었지만 오래 만난 듯한 기분으로 더욱 정겹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장대2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계신 양승채(74) 어르신이 합류하여 마을 이야기를 보태 주셨다. 장대2리 마을회관 마당엔 봄 햇살이 적당히 내려앉았고, 이장님은 방보다 마당이 좋겠다며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내오셨다.

본격 인터뷰는 마을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사연으로 시작했다. 장대2리 약 20만 평에 이르는 공간에 국민관광휴양단지를 건설한다는 업자와 대치중인데,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로 가닥을 잡고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소위 국민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면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숭암저수지 인근이 훼손돼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을이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반, 2반, 3반으로 구성된 장대2리에서는 주민의 90%가 깻잎 농사를 짓고 있고 공장 하나가 없는 상태이다. 서대산 가까이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청정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평화로운 동네에 느닷없이 국민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선다 하니 우선 동네가 시끄러워질 뿐 아니라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청정 전통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코로나19로 마을 주민들이 집합하지 못하나 우선 거리거리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거나 주민 차량에 반대 스티커를 붙여 대치중이다. 인터뷰에 응한 이천일 이장님과 양승채 어르신은 국민관광휴양단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절대 들어서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천일 이장님이 색소폰과 오르간 연주자로 화려했던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온 데는 자식으로서 홀로 사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신념이 작용했다. 고향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고, 이장으로 일한 것은 3년이 되어 간다. 이장 이야기가 나오자 양승채 어르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 우리 마을 이장 임기가 3년인디 지금 우리 이장이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이번에 임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이장을 해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마을 주민들이 강조하고 있슈."

이천일 이장님은 마을 막내로서 어르신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눈치였다. 이천일 이장님에게 마을 주민들은 보약 같은 존재다.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막힘없이 도와주고 화합 단결하는

마을 분위기에 기운이 솟는다. 장대2리에는 72가구 146명이 거주한다. 주요 농산물은 깻잎이며, 인삼, 약초, 작약, 잔대, 고사리, 포도 등도 재배한다. 깻잎의 경우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만큼 주민의 주 소득원이다. 깻잎 농사만으로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만큼 효자 농사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기온차가 심해 깻잎 농사를 짓는 데 최적이며 특히 깻잎 뒤에 자색이 짙어 깻잎 특유의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인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양승채 어르신의 마을 유래가 이어졌다. 장대 2리는 옛날에 경주이씨 국당공파 후손들이 모여살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숭암 저수지를 기점으로 아랫동네는 '장터'였고, 윗 동네는 '숭암'이었는데 일제 때 두 동네가 합쳐졌다. 동이면이 추부면으로 바뀌면서 장대1리와 장대2리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장대2리가 유지되는 데 '김두만'이라는 분의 공적이 컸다. 이 분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는데 돈이 많았다. 김두만 씨는 새마을 사업 때 동네 발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산제당을 건립했다. 이후 '내가 죽으면 나를 묻어주고 풀이나 깎아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분의 마음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다. 세월이 흐르며 이 분의 산소가 소실되었고 기념비 또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시 뜻을 세워 산제당을 짓고 김두만이라는 분의 공적을 기릴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 보호수 앞에 있는 기념비 내용을 보면 '천금을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다'는 한자 구절이 남아 있다.

전 마을로서 가치가 훼손되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천일 이장님과 양승채 어르신께 장대 2리 자랑을 요청했다.

“우리 마을은 무조건 청정지역입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동네지요. 정월 초순에는 이장님이 좋은 날을 잡아 산제를 지내고 화합 단결해요. 명절에는 이웃끼리 세배를 다니며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는 마을이랍니다.”

이장님께 힘든 점은 무엇인가 물었다.

“힘든 건 없어요. 장대2리가 1반, 2반, 3반으로 나뉘어 워낙 넓어서 무슨 일을 진행하려면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 빼면 우리 마을은 지상낙원입니다.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반딧불이, 가재, 중태기, 토종 새우가 우리 마을 개울에 삽니다. 청정 마을이잖아요. 단결 화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어버이날 행사나 추부면 깻잎 축제 등 모두 함께 어울려 먹고 놀고 우리 마을이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장대2리에는 나이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900년 내지 1000년이 되었다는 느티나무가 네그루나 있다. 모두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마을 수호신으로 섬겨 칠월칠석에는 당산제를 지내 마을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고려 말 마곡사의 말사로서 숭암사 절터가 있으며 유서 깊은 마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와 장대리 주민들이 환경 생태 관련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골프장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저수지 상류가 오염 되는 등 환경 상태가 심각하여 깻잎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친환경 생태 보

인터뷰를 마칠 때, 한 말씀을 힘주어 덧붙이셨다.

“대전시민이 마시는 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을부터 꼭 지킬게요. 우리 마을 수호신들이 화나시면 안 되지요.”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흥진마을 갈대, 억새 힐링 숲길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

봄비가 내리는 날 오랜만에 오백리길을 걸어본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다. 봄비 치고는 제법 많이 내린다. 3.1절이기도 한 오늘 비 오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을 아는 듯도 하고 조금 착잡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힘겨운 날들이 빨리 종식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인지 오늘의 오백리길 탐방은 환경 지킴이로서 더욱 깊은 자성과 책망을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오늘 코스는 흥진 마을을 끼고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정했다. 비도 오고 무리하지 않고 돌아보며 봄을 맞이하는 대청호변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려고 한다. 출발지점인 신상교에 도착을 하였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서 차창 밖이 보이질 않는다. 잠시 기다려서 하나 둘 도착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참 반갑다. 우산을 쓰고 출발을 한다. 카페 앞에서 지난번과 반대로 가는

빗속의 물억새

출발 전

버려진 쓰레기들

길을 택했다. 오랜만의 걷기라 그런지 연신 웃음꽃이 피어난다. 반가움의 표시가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 라는 전염병으로 펜데믹 상태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가까운 친구와도 사랑하는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스스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는 환경이 만들어 낸 질병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얻어낸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즐겁게 찾아간 자연 속에서 버리고 망가트리고 인간이 욕심을 부려 대었으니 자연인들 참을 수 있었을까?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더럽게 자연을 망가트리면서 자기들이 먹는 물은 깨끗한 것을 찾고 오염물질을 몰래 땅에 묻거나 불법 소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한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옹졸함인가?

빗속을 걷는 내내 마음이 착잡하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 되어 일상으로 돌아 가기를 바랄뿐이다. 토끼봉 앞으로 지난다. 지난 탐방 때는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이었는데 작은 자갈을 깔아 걷기가 편하다. 이제 제대로 대청호를 끼고 걷는 길이다. 봄이 가까이 왔는지 파릇하게 잎을 틔우는 나무들이 반갑기만 하다. 조팝나무도 하얀 꽃을 피우려는지 잔뜩 꽃망울을 머금었다 한동안 찾는 이가 없어 뜸했을 곳인데도 정겨운 것은 내가 이곳에 그만큼 정을 많이 주고 있음일지도 모른다. 무성한 잎이 떨어진 숲 사이로 혹은 호수 물가로 버려진 양심들이 눈에 뜨인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이 또 마음을 심란 하게 한다. 올해부터 우리 대청호 해설사회원들은 테마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수시

호수변 살피는 모습

나무 설명

로 이곳 대청호를 찾기로 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지만 쓰레기 수거를 하기로 하였고 그렇게라도 우리의 먹는 물 대청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잠시 비 가림 휴게소에 앉아 준비해 온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토론을 이어 간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기로 서로 다짐을 한다. 우리는 대청호 “클린 하이커스”가 되기로 하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런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 한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억새 숲에 다다랐다. 길 양쪽으로 가지런히 예쁘게 자란 억새를 보니 오늘의 빗길이 힘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억새 마다 방울방울 매달린 물방울이 더욱 영롱하게 반짝인다. 이런 모습이 좋았는지 줄기차게 내리던 빗줄기도 잠시 쉬고 있는 듯하다. 함께 걷는 김재식 팀장께서 이곳 억새는 그냥 억새가 아니라 물억새라고 다시 알려 준다.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물억새길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살펴보니 키도 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선비의 모습처럼 물억새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

흥진마을에 도착을 하였다. 앞쪽으로는 넓은 물억새가 장관이고 그 앞으로는 물이 드나들며 만든 예쁜 그림들이 수없이 펼쳐진 곳 정말로 그림 같은 동네가 흥진 마을이다. 잠시 돌아보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생김새로 보아 분명 카페가 틀림없다 그 옆으로는 유리온실도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는 분명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건축하가도 쉽지 않을 터인데 어찌 저런 건물이 들어서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안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이곳의 중요성을 알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켜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앞으로 청소년들과 대청호 환경 활동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억새를 중심으로 그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생

흥진마을

태환경을 돌아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이 자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곳에 와서 쉬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연의 참모습을 보고 느끼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점만 알게 해 주는 거다. 눈감고 바람소리도 들어 보고 물억새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도 들어 보고 바람이 지나며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체험해 보게 하고 새소리 물소리도 들어 보고 맑은 공기를 가슴깊이 들여 마셔도 보고, 그렇게 얻어진 자연체험이 말로 설명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깊이 남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싫다고 거부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미래를 생각 하는 환경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핍박 할지 모른다.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위하여 “클린 하이커스”가 되자. 그리하여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손에 손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보자 언젠가는 깨끗해진다는 신념으로, 이번 빗길 흥진마을 탐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많은 것을 생각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빗길 탐방 이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동행해 주어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

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대강의 보 해체 하나라도 이제 실천해야 할 때!!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백제보와 송촌보는 상시개방,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결론 내렸다. 이명박정권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4개월 만에 마스터플렌을 짜고, 3년만에 완공시킨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월 첫 삽을 뜬 후 사실상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년 만에 완공시킨 보 해체 결정에만 3년이 넘게 걸렸다.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결정해버린 4대강 사업을 다시 돌리는 결정에만 3년이 걸린 것이다. 2017년 문제인 정부 초기 4대강 사업 보 해체결정을 하겠다고 한 뒤 2017년 11월 처음 4대강 수문이 열렸다. 수문이 열린지 3년 2개월 동안 해체 결정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한심할 노릇이다.

언제 보해체의 첫삽을 뜰 지는 다시 미지수로 남았다. 물관리위원회가 보해체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의 협의해 결정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서 문제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은 정권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워졌다. 공약이행에 실패 한 것이다.

물관리위원회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미 지난 3년간 수차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었다. 심지어 자치단체 장이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지방정부의 의견은 반영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다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으라니!! 돌림노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하기 어렵니다. 때문에 지역의 환경단체는 보해체시기등을 확정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약이행 실패에 주역은 역시 환경부다. 2018년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1년간 수문개방모니터링을 결정하고 2019년 2월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결정 그대로를 환경부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때 결정을 마무리 했어야 했다. 아지 정부는 조사평가단의 제시안을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이를 다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미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했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믿지 않고 다시 결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별도의 설문을 다시 진행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이미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여론을 다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제시하며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미뤘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20년에 비해 시민들은 해체를 위한 목소리가 더 높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별 2019년과 2020년, 환경부 제시안 찬반 의견 변화]

단위: %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19	'20	격차 (%P)	'19	'20	격차 (%P)	'19	'20	격차 (%P)	'19	'20	격차 (%P)	'19	'20	격차 (%P)
찬 성	49.3	56.6	▲7.3	38.0	45.5	▲7.5	38.7	46.1	▲7.4	53.0	58.6	▲5.6	43.9	41.8	▼2.1
반 대	38.9	32.3	▼6.6	44.3	41.6	▼2.7	40.7	37.7	▼3.0	26.9	20.8	▼6.1	36.2	33.3	▼2.9
모 름 / 무 응 답	11.8	11.1	▼0.7	17.7	12.9	▼4.8	20.6	16.2	▼4.4	20.1	20.6	▲0.5	19.8	24.9	▲5.1

보해체목소리가 높아진 여론이 아니라 유지 목소리가 높았다면 공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간의 답답한 과정에 여러 의심들이 높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4대강 전체도 아닌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약 1년 반이 걸렸다. 4대강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용을 투여한 낙동강과 한강은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처럼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 정부는 4대강 관련해서는 결정을 꾸준히 미루어 왔다. 금강도 문제지만 4대강으로 인한 재앙이 제일 심각한 낙동강은 아직도 4대강 사업 이후와 달라진 게 없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 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5줄을 결정하는데 수문을 개방하고 꼬박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결정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다시 해체 계획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명박처럼 4개월만에 마스터플렌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지 2개월 만에 착공을 할 수는 없다. 결정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는데, 세부계획은 얼마나 오래걸릴지 알 수 없다. 환경부는 시급하게 추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환경부의 무능을 알기에 더 답답하다.

금강유역물관리위가 올린 '지역 여건' 등의 단서조항는 "수년에 걸친 모

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했고, 무엇보다 세종보와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드러난 자연성 회복은 보 해체의 당위를 마련했고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국민의식조사도 마쳤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관리위원회는 해체시기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주민과 지자체의견을 수렴하라는 거의 원점으로 돌리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환경부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공주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2020년 모습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백제보 수문이 개방된
2020년 모습

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하고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넘긴 격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이 지나는 동안 단서조항으로 의미를 상실한 보 해체 결정 하나 한게 전부이다. MB정권 시절에 4대강사업에 저항했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라도 최소한 4대강 16개 보 중 세종보 한개라도 해체해야 한다. 300억원정도인 해체비용이면 철거 할 수 있는 세종보라도 말이다.

또 한 번 물관리 위원회의 결정이 선언에 그치게 할 수 없지는 않은가!!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음성 원남저수지, 생태관광지 된다

충북도가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와 음성 원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2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이달 중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 추천을 받아 자체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옥천과 음성을 도내 후보지로 선정했다.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는 안내면 장계리와 옥천읍 수북리, 동이면 석탄리(안터), 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지역이다. 전체 면적은 43㎢다.

이곳은 1981년 대청댐 준공 후 40년간 각종 개발과 환경규제 지역에 묶여 자연 생태적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이 서식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호수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 청정 생태마을을 조성했다.

도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의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적이 0.84㎢인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는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붉은박쥐, 원앙,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10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전 가치가 높다. 2019년부터 저수지의 모든 수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원남테마공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오감만족새싹체험장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생태관광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대표 관광지 2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도내에는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 26곳에 달한다.

【뉴시스】2021. 1. 16 천영준 기자

"들어가지 말라"vs"법적근거 있냐"… 위험천만 빙어낚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데도 대청호와 곳곳의 저수지에는 빙어를 낚으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이 평년(1 2.5도) 수준을 훌쩍 웃돌면서 결빙상태가 약해져 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

낚시하러 들어가겠다는 행락객들과 진입을 저지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24일 낮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 앞 대청호에서는 30 40여 명이 호수 위 얼음에 구멍을 뚫고 빙어 낚시를 즐겼다.

부모와 함께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썰매를 지치기도 했다.

많을 때는 200 300명이 몰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20일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수은주가 쑥 올라갔다. 24일 낮 기온도 오후 1시 현재 12.5도를 기록했다.

옥천군은 대청호 얼음 위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공무원들을 보내 행락객들에게 낚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풀려 위험하니 낚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행락객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기 일쑤"라며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떠나 수난사고 위험이 큰 데도 구명조끼를 입은 행락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곳곳의 저수지에도 빙어 낚시를 하는 행락객들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안전 문제는 뒷전이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출입제한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빙어 낚시를 즐기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낚시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휴일마다 예찰반을 꾸려 저수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21. 1. 24 심규석 기자

대청호 유역 재산권 보호 '길' 열릴까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대청호 유역 주민의 재산권 규제 완화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요청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 활로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000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청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충천뉴스】2021. 1. 21 김거수 기자

옥천군 대청호 주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뜻밖 '암초'

대청호 주변의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던 충북 옥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낚시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정부 답변이 나오자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옥천군이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때는 작년 하반기이다.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인데,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먹다 버린 음식물과 페트병, 빈 소주병, 비닐봉지, 부탄가스 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낚시인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주변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낚시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옥천군이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군북면 지오리와 동이면 석탄리는 폭염 때면 으레 곤죽처럼 응어리져 악취를 풍기는 녹조 발생 수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이 호수 생태계·어족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게 '낚시 통제구역'이다.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옥천군이 조례 제정을 위해 염두에 뒀던 상위법은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취지의 낚시관리육성법을 쓰레기투기 억제,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상위법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물환경보전법 역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만 낚시 금지·제한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쓰레기 수거에 쓸 수수료를 이 법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지만 대청호를 찾는 모든 낚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두 법이 아닌 하천법을 토대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만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붕어나 잉어를 낚는 대낚시만 막을 수 있을 뿐 루어 낚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청호 주변 낚시용품 판매 업자들도 "코로나19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통제구역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데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조례 제정을 연초에 마치고 낚시인이 몰리는 3, 4월 이전 통제구역을 정하려 했던 게 옥천군의 당초 구상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옥천군은 조례 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고시'로도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낚시철이 되기 전까지 고민해 법에 어긋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21. 2. 3 심규석 기자

축산환경포럼 첫 손님은 시민환경단체…
"축산문제 국민공감지수 높인다"

농촌현장의 축산악취 문제를 다루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주민들이 공감하는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3일 세종시 본원 6층 대교육장에서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지속적 상생 · 발전을 도모하는 '제1회 축산환경포럼'을 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의 면면이 달랐다. 최충식(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길복종(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신나영(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문제팀장),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이건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등 지역사회의 환경운동그룹이 모두 초대됐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전략실장은 "그동안 축산환경 정책수립 담당자, 시군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문제를 고민하면서도 같은 지향점을 갖고있는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과의 소통이 많지 않았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지역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도 중앙 부처(농식품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정책목표와 노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축산문제가 악취유발, 물 오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식량안보(국민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했지만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고민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농식품부·환경부, 대한한돈협회, 수질·대기 관련 분야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 한 포럼에서는 농경지 양분수지 불균형에 대한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색됐다. 최충식 사무총장의 '시민이 바라보는 축산환경' 주제발표도 있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분기별로 정부기관·학계·민간부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내용을 정책 아젠더로 발굴해 나갈 작정이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은 "축산환경포럼 활동을 통해 축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려 한다"며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2021. 3. 4 정혁수 기자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코앞…
보은·옥천 축산농가들 비상

충북 보은·옥천의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축사퇴비 부숙(腐熟·썩혀 익힘)도 검사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다.

4일 보은군과 옥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는 100~450㎡(한우·젖소 기준),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군은 연간 28만5079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분뇨 처리량의 10% 정도다. 나머지 90%는 개별 처리해야 할 처지다.

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려면 2019년 기준 보은군 내 소 사육 농가 889곳 중 206곳을 제외한 683곳의 한우·젖소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보은군과 축협 등이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옥천지역 축산농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옥천군(청산면, 청성면 능월리·도장리 제외)은 축사면적 450㎡ 이상(소, 젖소) 농가는 연 2회(6개월)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 100~450㎡ 미만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천군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 이상)를 농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료 채취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퇴비장과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병목 옥천군 작물환경팀장은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축산농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축사퇴비 부숙도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등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2021. 3. 3 장인수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월 18일 오후 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제24차 회원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1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 그린뉴딜 정책 재수립 요구 및 탄소중립 정책 제안, 녹색교통과 보행 중심 도시로의 전환활동,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세종보 철거, 도심하천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활동에 집중한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녹색人상 시상식을 가졌다.

녹색人상은 2020년 지역 생태환경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환경운동에 앞장선 시민과 기관 및 단체 총 5명(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녹색人상에는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한 '신성이앤에스(주)' ▲ 녹색생활실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한 시민 '송순옥' 씨 ▲ 지역에너지전환과 생태마을을 함께 발굴해 모범적 거버넌스를 보여준 '오재룡 대덕구 도시계획과 상수원관리팀장' ▲ 대전에서 헌신적으로 탈핵활동에 힘써 온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힘써 온 '대전하수도민영화저지주민대책위'가 선정됐다.

그 외 10년 동안 녹색연합 활동을 후원한 개인후원자 4명이 10년 후원자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탈플라스틱', 생명을 죽이지 않는 밥상으로 전환하는 '탈육식',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자동차와 이별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탈탄소'를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은 올 한 해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더 많은 시민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YWCA

대전YWCA,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탈핵 캠페인' 진행

대전YWCA는 오는 3월 14일까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를 맞아 탈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SNS 이벤트 '핵사고' 삼행시 짓기와 릴레이 온라인 캠페인, 10주기 당일인 11일 오후 3시 11분에는 대전YWCA 회관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일어난 지진해일로 핵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전히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웃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30년간 액체 방사성물질을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전YWCA 관계자는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돼 있다"며 "우리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머뭇거리고 외면하는 동안 10년이 지나버렸기에 이제라도 탈핵을 통해 생명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무주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올해 본격 추진

'아름다운 빛과 테마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될 전북 무주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무주군은 용역사를 비롯해 무주군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3월 3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7월 착공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구상과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자 설명과 주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고 무주군은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원(도비 138억원)을 들여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 빛과 테마가 어우러진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반디테마 빛 거리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조명 △경관인도교 △빛 조명 체험존 등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휴게공간을 비롯한 빛 거리 경관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며, 주차장과 빛 거리 버스킹 공연장을 갖춘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새로운 야간 경관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따뜻한 빛, 안전한 빛, 특별한 빛 등 3개의 방향을 잡고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 관광객 트렌드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기반시설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지난해 6월 동부권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최종 승인되면서 시작됐다.

류시간 증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토대로 남대천 주변을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금산군, 기사천 유역 생태복원 나선다… 663억 투입

금산군이 기사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 663억 원을 투입한다.

기사천은 금강수계 봉황천 중류에 유입되는 지류하천으로, 유역 내 가축사육 및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수질 오

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군은 2월 1일 기사천 유역 물환경 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물환경 개선사업은 오염지류 하천에 대해 국가가 생태하천복원을 목표로 환경오염방지 개선 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산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로부터 기사천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집중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까지 총 352억 원을 확보, 군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66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기사천 생태하천복원에 245억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66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에 152억 원이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의 설계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위별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충북 옥천군은 민·관 합동으로 대청호 환경보전과 친환경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2월 1일 군에 따르면 '대청호 물 환경보전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체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3월 대청호 환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온 주민들과 TF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한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대청호 정책협의회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자연', '사람',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별 10개의 전략과제와 28건의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전 정책과 상수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팔당호와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의 고시 분리와 대청호 유역 공동체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청정사업, 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도선의 운항 허용, 수변구역(행위규제)과 총량 관리(오염 배출량 관리)의 중복적 행위규제 개선으로 수변구역 해제, 특별대책지역내 공업지역 변경 제한 완화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군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전달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 등에 전달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대 형성과 더 나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종 군수는 "대청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장과 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앞으로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청호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주민이 더욱 성숙한 대청호의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청호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대청호 유역 공동체'를 구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청호를 품고 있는 옥천군은 충청권 45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과 함께 지역과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의 배제, 기회의 상실, 대청호와 주민 생활의 차단, 오염원으로의 인식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전 동구

대전 동구, 새봄맞이 '대청호 환경정비' 앞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월 6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청호 주변 환경정비를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오는 26일까지 구에서 추진 예정인 동별 '새봄맞이 대청소'의 일환으로 황인호 동구청장과 환경관리요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호 오백리길 4·5코스 등 대청호 수변 주요 산책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황인호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바깥활동 제한으로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자 대청호를 찾은 주민들께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환경정비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새봄맞이 대청소' 활동으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약 3주간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단체 등의 자율참여 하에 다중인원 집합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동별 불법쓰레기 취약지역 등에 대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